

李白의 金陵에서의 情懷 小考

여 정 연*

<目次>

I. 들어가며	2. 회고 관련 情懷
II. 금릉 이미지 및 이백의 금릉 방문	3. 遊樂 관련 情懷
III. 이백의 금릉에서의 情懷	4. 그리움 관련 情懷
1. 이별 관련 情懷	IV. 결론

I. 들어가며

이백은 25세 때 촉 지방을 나온 이래 장안에 있었던 몇 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람으로 생을 보냈다. 洛陽, 宣城, 兗州, 岳陽, 揚州 등 이백이 방문한 지역은 수없이 많으며, 金陵 또한 그 가운데 한 곳이다.

이백의 금릉 방문은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蜀 지역을 나왔을 때(725~726), 한림공봉을 사직하고 漫遊할 때(747~750),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前後 몇 년(753~756), 그리고 永王 李璘의 거병에 가담한 죄를 사면받은 후 얼마 동안(761~762)이다. 이백은 금릉을 정착지로 삼았거나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금릉에 있는 동안에도 선성, 양주, 秋浦 등 여러 곳을 왕래했다. 그러나 이백은 삼십 대를 제외하고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금릉을 잊지 않고 꾸준히 방문했다.¹⁾

* 국립경국대학교 중국어문·문화학전공 강사

이백에게 금릉은 유적지가 있어 옛사람을 그리워했던 곳이기도 했고, 술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즐겁게 지냈던 곳이기도 했다. 또한 楊利物, 崔成甫와 같은 인재와 교류했던 곳이기도 했고, 교류했던 친구들과 이별했던 곳이기도 했다. 특히 한림공봉을 사직하고 정치적 실의를 안고 금릉에 왔을 때는 쇠락한 육조의 古都를 바라보며 懷才不遇한 심정과 부귀공명과 영고성쇠의 무상함을 토로했던 곳이기도 했고, 암울한 정치 현실을 걱정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감회를 52題 62首의 시에 남겼다.

이백의 금릉 관련 시에 대해 중국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²⁾ 도읍 문화나 공간 이미지, 잠재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거나,³⁾ 〈금릉삼수(金陵三首)〉, 〈금릉의 봉황대에 오르다(登金陵鳳皇臺)〉와 같은 특정 작품을 분석한 것이 있다.⁴⁾ 또한 이백이 금릉을 방문한 기간에 따라 일부 작품을 소개하거나,⁵⁾ 懷古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있다.⁶⁾

- 1) 王志清은 이백이 오 땅을 좋아한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이백이 江南血脈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술과 변화함을 좋아하는 이백의 天性 때문이다. 셋째는 이백이 숭배한 謝朓, 謝安, 謝靈運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아름다운 미인과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王志清, 〈吳地對李白的精神重塑與詩歌造就〉, 《東南大學學報》第15卷 第6期, 2013, 76쪽.
- 2) 張天來의 〈李白金陵情結研究〉는 ‘金陵文化與李白的金陵情結’, ‘李白金陵詩、文解析’, ‘李白金陵情結與長安情結比較’로 나누어 금릉 관련 이백 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張天來, 〈李白金陵情結研究〉, 東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 3) 鄭琛, 〈現實與追憶—長安, 金陵與唐詩人的都市文化心態〉,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趙丹琦, 〈論李白金陵詩的帝都文化意蘊〉, 《南京審計學院國際文化交流學院》, 2009. 周克勤, 〈李白金陵情結解析〉, 《金陵科技學院學報》第30卷 第1期, 2016. 呂星月, 袁曦臨, 〈李白金陵詩歌的空間意象挖掘策略研究〉, 《數字人文》第12期, 2021. 張重陽·王美, 〈論李白金陵詩中的‘水’意象〉, 《中原文學》, 2024.
- 4) 王國巍, 〈“鳳凰”自比“黃鶴”好—論李白〈登金陵鳳皇台〉的超越性〉, 《西華大學學報》第3期, 2005. 王志清, 〈金陵懷古第一詩—李白〈金陵三首〉薦賞〉, 《古典文學知識》第6期, 2009.
- 5) 王許林, 〈風流詩仙金陵情—漫談李白六遊金陵的前前後後〉(上)(下), 《文學史話》第2期, 2020.
- 6) 王志清, 〈李白與“金陵懷古”的集體無意識〉,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第1期, 2011.

다만, 기존 연구의 아쉬운 점은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전체 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의 제재와 시에 드러난 情懷가 무엇인지 연구한 논문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시를 제재별로 나누고, 이백의 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별’, ‘회고’, ‘유락(遊樂)’, ‘그리움’과 관련된 이백의 정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백이 漫遊한 여러 지역 중 특히 좋아했던 금릉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시를 지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II. 금릉 이미지 및 이백의 금릉 방문

南京은 육조의 수도이기에 六朝故都라고도 한다. 동한 말 뭇나라 손권이 東吳를 건립하며 功業을 세운다는 의미로 建業이라 이름하고 수도로 삼았다. 이후 西晉 시기에는 낙양과 장안이 수도가 되고, 남경은 建鄴과 建康으로 개명되었다가, 司馬睿가 남하하여 東晉을 세우면서 建康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가 되었다. 그 후 남조의 宋·齊·梁·陳이 모두 건강을 수도로 정하면서, 남경은 육조 360년 동안 왕조의 수도로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隋나라가 건국되면서 북방지역인 長安과 洛陽이 수도가 되자 남경은 수의 꺾박을 받았다.⁷⁾

당나라 때의 남경 또한 육조 수도였을 때의 번영을 누리지는 못했다. 王勃은 <강녕 오소부의 댁에서 송별연을 하며 지은 서문(江寧吳少府宅餞宴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호랑이가 웅크리고 용이 서린, 삼백년 제왕의 도읍. 주변은 돌로 둘러싸인 요새요, 땅은 풍요로운 금릉이라네. 패왕의 기운 다하여 강산이 텅 비었네. 황제의 은혜는 사라지고, 시장과

7) 《自治通鑒》: “조칙을 내려 건강 성읍의 궁실을 모두 허물어 평지로 만들고 개간하여 농지로 삼았으며, 석두성에서 장주를 관할했다(詔建康城邑宮室, 並平蕩耕墾, 更於石頭城置蔣州).”

조정의 질서도 바뀌었네. 옛날은 지세가 험하여, 실로 대업을 세울 웅대한 도성이었네. 지금은 세상이 태평하여, 강녕의 작은 마을 되었네(虎踞龍盤, 三百年之帝國. 關連石塞, 地寶金陵. 霸氣盡而江山空. 皇風清而市朝改, 昔時地險, 實爲建業之雄都. 今日太平, 即是江寧之小邑.)” 이백 또한 <금릉삼수>의 제2수에서 “당시에는 백만 호였고, 길 양옆으로 붉은 누각 솟았었지. 망국의 도읍에는 봄풀이 돋아나고, 왕궁은 옛 무덤에 묻혔네(當時百萬戶, 夾道起朱樓. 亡國生春草, 王宮沒古丘)”라고 하여 육조시대와 대비되는 쇠락한 남경의 모습을 그렸다.

비록 남경이 강녕의 작은 마을이며 쇠락한 육조의 古都로 바뀌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주로 남경을 긍정적 의미를 지닌 金陵으로 불렀다. 당나라 때 남경은 관할구역의 변동과 함께 여러 지명이 사용되었다. 양주(揚州),⁸⁾ 귀화(歸化), 금릉(金陵),⁹⁾ 백하(白下), 강녕(江寧), 승주(昇州), 상원(上元) 등이 그것이다. 이백이 생존했을 때의 남경 또한 행정구역상의 명칭이 금릉, 강녕, 승주, 상원 등 다양했다. 그런데 이백의 시에서는 과거 六朝의 수도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當時의 지명으로도 남경을 대부분 금릉이라 칭했다.¹⁰⁾ <금릉에서 한시어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듣

8) 당나라 때 양주(揚州)는 두 도시의 명칭이었다. 하나는 지금의 남경으로, 620년 高祖 때 양주로 개명되었다가 후에 귀화(歸化)로 바뀌었다. 하나는 지금의 양주로, 620년 연주(兗州), 623년 한주(邢州)로 개명되었다가 후에 양주로 개명되었다.

9) 당나라 때도 금릉이 행정상의 지명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다. <舊唐書·地理志·江南道條>에 의하면 당나라 고종 武德 3년(620)에 江寧이 歸化로 개명되었고, 武德 8년(625)에 다시 歸化가 金陵으로 개명되었으며, 武德 9년(625)에 금릉이 또 白下로 개명되었고, 肅宗 至德 2년(757)봄에 金陵郡을 두었다고 했다. 한편 옥현호는 <新譯李白詩全集>에서 “승주는 당나라 숙종 지덕 2년(757)에 강녕현에 강녕군을 설치하였고, 건원 원년(758)에 승주로 개명되었다. ……상원 2년(761)에 승주를 없애고 강녕으로 개명하였고 또 상원현이 되었다(昇州, 唐肅宗至德二年於江寧縣置江寧郡, 乾元元年改爲昇州. ……上元二年廢昇州, 改江寧爲上元縣)”라고 했다.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三民書局, 2011, 506쪽. 두 자료를 보면, 금릉 명칭의 사용은 武德 8년(625)과 至德 2년(757)임을 알 수 있다.

10) 지명과 연관된 관직명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당시의 지명을 사용했다. 예

다(金陵聽韓侍御吹笛)나 <금릉의 강가에서 봉지의 은자를 만나다(金陵江上遇蓬池隱者)> 등이 그 예이다.

남경은 육조 시기에는 건업과 건강이라는 도읍의 명칭이 있었고, 당나라 때는 백하와 강녕 등의 여러 행정구역 명칭이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금릉 명칭의 사용을 좋아한 것은 남경이 왕의 기운(王氣)과 연관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금릉 명칭의 유래 가운데는 제왕의 기운을 꺾는 과정에서 금릉으로 命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¹⁾ 또한 진나라 때 術士가 ‘500년 후에 금릉에 도읍의 기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내용도 전한다.¹²⁾ 남조 제나라 시인 謝朓는 <입조곡(入朝曲)>에서 “강남은 아름답고 화려한 땅이고, 금릉은 제왕의 고을이라네”라고 하여 제왕의 고을 명칭을 당시 도읍이었던 건강 대신 금릉으로 썼다.¹³⁾

금릉이 王氣를 품었거나 帝王의 고을이라는 인식은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다. 이백은 <매강 언덕에 올라 금릉을 바라보며 죽질인 고좌사의 중부스님에게 주다(登梅崗望金陵贈族姪高座寺僧中孚)>에서 “종산이 금릉을 품고

를 들면 승주자사, 강녕현령 등이다. 한편, 당시 남경의 행정구역 명칭 가운데는 白下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백하는 금릉처럼 지명으로 사용되기보다 주로 白下亭, 白下門, 白下橋 등에서 남경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 11) 《景定建康志》: “주현왕 36년에 초위왕 웅상이 월나라를 패배시키고 옛 오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 땅은 왕의 기운이 있어 여기에 금을 매장하여 그 기운을 억누르고 금릉이라고 불렀다(周顯王三十六年, 楚子熊商敗越, 盡取故吳地, 以此地有王氣, 因埋金以鎮之, 號曰金陵).”
- 12) 《元和郡縣志》: “본 금릉 땅은 진시황 때 하늘의 운기로 길흉을 점치는 술사가 ‘500년 후에 금릉에 도읍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진시황이 동으로 유람하여 그 기운을 누르고, 그 땅을 말릉(棘陵)으로 바꾸었으며, 북산을 파서 그 기세를 끊어 버렸다(本金陵地, 秦始皇時, 望氣者云, ‘五百年後, 金陵有都邑之氣.’ 故始皇東遊以厭之, 改其地曰棘陵, 塹北山以絕其勢).”
- 13) “강남은 아름답고 화려한 땅이고, 금릉은 제왕의 고을이라네. 굽이굽이 푸른 물결 감돌아 흐르고, 아득하게 붉은 누대 솟아있네. 나는 듯한 용마루는 천자의 행차 길을 끼고 있고, 늘어진 버들은 궁정 도랑을 덮고 있네. 느린 피리 소리가 높은 수레에 울리고, 가벼운 북소리가 아름다운 수레를 진송하네. 충언의 글이 운대에서 받아들여져, 공명을 진실로 얻을 수 있네(江南佳麗地, 金陵帝王州. 逶迤帶綠水, 迢遞起朱樓. 飛甍夾馳道, 垂楊蔭御溝. 凝笳翼高蓋, 疊鼓送華輜. 獻納雲臺表, 功名良可收).”

있어, 패왕의 기운이 옛날에 뻗어 올랐네(鍾山抱金陵, 霸氣昔騰發)”라고 했고, <영왕의 동쪽 순행 11수(永王東巡歌十一首)>의 제4수에서는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제왕의 고을이네(龍盤虎踞帝王州)”라고 했다. 나아가 <송중승을 대신하여 쓴 금릉 천도를 청하는 表文(爲宋中丞請都金陵表)>에서는 “신이 보건대 옛 도읍 금릉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산세는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리는 형상으로, 여닫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육조의 황제가 기거했으며, 오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웅대한 지략과 패업의 자취가 성대히 남아 있습니다(臣伏見金陵舊都, 地稱天險. 龍盤虎踞, 開扇自然. 六代皇居, 五福斯在. 雄圖霸跡, 隱軫由存)”라고 하며 금릉으로의 遷都를 건의했다. 이백뿐만 아니라 당나라 시인 중에서도 금릉 명칭을 사용하여 霸氣가 강하다거나 혹은 王氣가 사라졌다고 시에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⁴⁾ 이는 당시 사람들이 남경을 王氣와 연관된 곳으로 인식하여 금릉 호칭의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라 하겠다.

이백은 금릉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이를 시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¹⁵⁾

- 14) 李商隱 <南朝>: “지세가 험준하고 광활하여 천연의 요새이니, 금릉의 王氣가 아름답게 빛나네(地險悠悠天險長, 金陵王氣應瑤光).”
 劉禹錫 <西塞山懷古>: “왕주의 누선이 익주에서 내려가니, 금릉의 王氣가 어둡처럼 끝났네(王濬樓船下益州, 金陵王氣黯然收).”
 이외에 劉禹錫의 <金陵懷古>, 羅隱의 <金陵夜泊>, 許渾의 <金陵懷古>, 沈彬의 <金陵雜題> 등의 시에서도 금릉을 王氣와 연관 지어 노래하고 있다. 陸精康 <唐詩中的金陵王氣>, 《語文建設》, 2013, 48쪽.
- 15) 이백의 금릉 방문 횟수와 작품 및 창작시기는 학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莫項은 안기와 제3차 방문 시기가 서로 다른데, 이 시기를 754년 봄가을쯤으로 보았다. 莫項, <情系金陵的李白>, 《中學生百科》, 2005 참조.
 王許林은 이백의 금릉 방문을 여섯 차례로 세분화했다. 제1차는 725년, 제2차는 738년, 제3차는 740년, 제4차는 747년, 제5차는 754년 제6차는 761년이다. 王許林, 앞의 책 참조.
 詹鏞의 《李白詩文系年》에서는 이백이 금릉을 7차례 방문했다고 보았다. 王志清, 앞의 책, 75쪽.
 본 논문은 이백의 금릉 방문 기간과 횟수, 작품에 대해 安旗의 《李白全集編年注釋》을 따랐다. 구체적인 작품명은 부록 참조.

첫 번째 금릉 방문(725~726)은 이백이 고향 匡山을 떠나 유람하던 시기이다. 이백은 長江 유역을 유람하다 廬山과 天門山을 거쳐 725년에 금릉에 도착했고, 726년 봄에 양주로 떠났다. 이 시기 금릉에서 지은 작품은 모두 12題 14首이다.

두 번째 금릉 방문(747~750)은 이백이 한림공봉을 그만두고 장안을 떠나 漫遊하던 시기이다. 梁宋 지방과 濟南 등지를 유람하다 747년 양주를 거쳐 금릉을 방문했고, 이해 여름에 天台山으로 떠났다. 748년 남경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750년까지 주로 금릉에 거주했으며, 중간에 양주와 선성 등지를 유람했다. 금릉에서 지은 시 가운데 이때 지은 시가 가장 많으며 모두 31題 37首이다.

세 번째 금릉 방문(753~756)은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전후 몇 년이다. 당시 이백은 하북 지역을 유람하고 宣城을 들른 후, 753년 겨울 금릉에 도착했다. 이듬해인 754년 봄까지 금릉에 머무르다 양주, 추포 등지로 떠났으며, 755년에 다시 금릉으로 돌아왔으나 또 梁園으로 떠났다.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은 2首이다.

그리고 마지막 금릉 방문(761~762)은 永王의 거병에 가담한 죄로 유배가다가 사면받은 이후이다. 夔州에서 사면을 받은 이백은, 江夏, 岳陽 등지를 유람하다 761년 금릉에 이른다. 그리고 이듬해인 762년 겨울 當塗로 떠난다. 이때 이백은 금릉과 선성 사이를 오갔으며, 종군하기 위해 李光弼의 막부로 가다가 중도에 병으로 다시 금릉으로 오기도 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은 7題 9首이다.

Ⅲ. 이백의 금릉에서의 情懷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시 중에는 하나의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제재가 복합적으로 그려진 작품도 있다. 예를 들면 <금릉의 노래로 범선과 송별하

다(金陵歌送別范宣)는 송별과 회고의 내용이 있고, <매강 언덕에 올라 금릉을 바라보며 죽질인 고좌사의 중부스님에게 주다>는 송별과 회고의 내용 외에 中孚스님을 칭송하는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시의 체재를 엄격히 나누어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 편의상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¹⁶⁾

〈표 1〉 금릉에서 지은 시의 체재별 분류

이별	회고	遊樂	그리움	칭송	기타
19수	16수	13수	9수	3수	9수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된 ‘이별’, ‘회고’, ‘유락(遊樂)’, ‘그리움’과 관련된 이백의 정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참고로 칭송과 기타에 대해 언급하자면, 칭송의 시 3수는 中孚스님의 풍모와 그의 시를 칭송한 것과 한운경의 피리 소리를 칭송한 것이다.¹⁷⁾ 기타 9수는 공성신 퇴나 번뇌를 씻고 싶은 바람, 세태 비판, 노년의 비애, 은거, 우정, 사랑, 야경묘사, 干謁의 내용이다.¹⁸⁾

1. 이별 관련 情懷

이백은 금릉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금릉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금릉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을 오고 갔다. 또한 금릉에 있는 동안 楊利

16) 두 개 이상의 내용은 각각의 체재에 모두 넣었다. 즉 <金陵歌送別范宣>의 경우 이별과 회고에 모두 넣었고, <登梅崗望金陵贈族姪高座寺僧中孚>는 이별, 회고, 칭송에 모두 넣었다.

17) <答族侄僧中孚贈玉泉仙人掌茶>, <登梅崗望金陵贈族姪高座寺僧中孚>, <金陵聽韓侍御吹笛> 등 3수.

18) <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 <題金陵王處士水亭>,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稚朝飛>, <酬崔侍御>, <自金陵泝流過白碧山玩月達天門寄容王主簿>, <楊叛兒>, <夜下征虜亭>, <贈昇州王使君忠臣> 이상 9수.

物,韓雲卿, 崔成甫, 殷淑, 范宣, 張十一, 금릉의 자체들 등 여러 인재와 교류했다. 이 때문인지 이백이 금릉에서 이별과 관련하여 지은 시가 17題 19首나 된다. 이 가운데 이백이 금릉을 떠나는 사람을 위해 전송하며 쓴 송별시가 8題 10首이고,¹⁹⁾ 이백 자신이 금릉을 떠나며 전송하는 이에게 남긴 留別詩가 5수이다.²⁰⁾ 이외에 이별에 대해 언급한 시가 4首이다.²¹⁾

이백은 세상에서 이별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노로정(勞勞亭)>에서는 “천하에 마음 아픈 곳, 애달프게 길손 보내는 정자라네. 봄바람도 이별의 괴로움을 알아, 버들가지에 새싹마저 아니 돌게 하였네(天下傷心處, 勞勞送客亭. 春風知別苦, 不遣柳條青)”라고 했다.

노로정은 금릉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10리마다 驛에 정자를 두었는데, 정자가 驛에 있어서 驛亭이라고도 했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별하여 離亭이라고도 했다. 주로 나그네가 쉬어가거나, 떠나는 이를 송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별을 내용으로 한 이백의 전체 시 가운데 離亭을 제재로 한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런데 이백은 금릉에서 3곳의 각기 다른 離亭을 제재로 이별의 슬픔을 시로 표현했다. 바로 <노로정>, <노로정 노래(勞勞亭歌)>, <금릉 백하정을 떠나다(金陵白下亭留別)>, <세각정(洗脚亭)>이다.

이백은 離亭에서 금릉을 떠나가는 친구를 전송하기도 했고, 친구를 남겨두고 자신이 금릉을 떠나가기도 했다. 또한 실제 이별을 하지 않았더라도 離亭에서 이별의 감회에 젖기도 했다. 離亭 자체로도 이별의 상징성이 크지만, 이백은 離亭 주위의 쓸쓸한 자연경관을 묘사하여 이별의 아픔을

19) <洗脚亭>, <送崔十二遊天竺寺>, <金陵歌送別范宣>, <金陵送張十一再遊東吳>, <送殷淑三首>, <送韓侍御之廣德> <送楊燕之東魯>, <送蕭三十一之魯中兼問稚子白禽> 이상 8題 10首.

20) <口號>, <金陵西肆留別>, <留別金陵諸公>, <金陵白下亭留別>, <聞李太威大舉兵百萬出征東南, 儒夫請纓, 冀申一割之用, 半道病還, 留別金陵崔侍御十九韻> 이상 5首.

21) <勞勞亭>, <勞勞亭歌>, <金陵江上遇蓬池隱者>, <登梅崗望金陵贈族姪高座寺僧中孚> 이상 4首.

깊이 있게 그렸다. 예를 들면 <노로정 노래>에서는 이별의 애달픔을 바람과 백양나무에 기탁하여 “금릉의 노노정은 길손을 배웅하는 곳, 덩굴풀 무성히 길가에 나 있네. ……이곳의 슬픈 바람은 백양나무를 시름겹게 하네(金陵勞勞送客堂, 蔓草離離生道旁. ……此地悲風愁白楊)”라고 했다. 또 <세각정>에서는 서리 같은 갈대꽃으로 이별의 쓸쓸함을 표현하며 “서쪽 백로주를 바라보니, 갈대꽃이 아침 서리 같구나. 그대 지금 떠나보내고, 고개 돌려 눈물 주르르 흘리네(西望白鷺洲, 蘆花似朝霜. 送君此時去, 回首淚成行)”라고 했다. 이외에 離亭 주위의 상징적인 자연 경물을 이용하여 이별의 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금릉 백하정을 떠나다>는 이별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로 헤어짐의 애뜻함을 묘사했다.

驛亭三楊樹,	역정의 버드나무 세 그루
正當白下門.	바로 백하문을 마주하고 있네.
吳烟暝長條,	오 땅의 안개가 긴 가지를 어둡게 하고
漢水齧古根.	한수의 강물이 늙은 뿌리를 닳게 하였네.
向來送行處,	예부터 떠나는 이 전송하던 곳이라
迴首阻笑言.	돌아보며 웃으며 말할 수 없네.
別後若見之,	이별 후에 만약 이를 보면
為余一攀翻.	날 위해 한 가지 꺾어 주시게.

이 시는 이백이 廬山으로 떠나며 금릉의 벗과 백하정에서 이별할 때 쓴 것이다. 제1구 ‘역정의 버드나무 세 그루’는 이별하는 곳의 정경을 설명한 것이다. 역정과 버드나무는 모두 이별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이별 장소의 설정은 시의 시작부터 이별의 정황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어지는 제3구와 4구는 백하정 주위의 경관이다. 오 땅의 안개가 버드나무 가지를 뒤덮어 어둡게 하고, 한수의 강물이 늙은 버드나무 가지에 닿아 뿌리를 닳게 한 정경은 ‘어둡다(暝)’와 ‘닳다(齧)’라는 부정적 시어를 사용하여 버드나무 주위 경관의 침잠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지막 4구는 이별할 때 버들가지를 꺾어 주는 ‘折柳贈別’의 풍속을 언급하고 있다. 이백은 折柳 행위를 통해

훗날 벗이 자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리워해 주길 바라며 석별의 정을 노래했다.

한편,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시 가운데 시에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강물이다. 금릉에는 長江이 흘러가고, 지류인 漢水가 있으며, 시내를 관통하는 秦淮河가 있다. 이에 이백은 흘러가는 강물을 언급하며 옛 왕조의 쇠락을 말했고, 강물에 배를 띄워 누군가를 그리워했다.²²⁾ 그리고 강물의 길이로 이별의 애절함을 비유했다.²³⁾ 이백이 자신을 송별하는 이를 위해 쓴 유별시 <금릉 주점에서 이별하다(金陵酒肆留別)>에서는 이별의 정을 강물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風吹柳花滿店香,	바람이 버들꽃에 불고 주점에는 향기 가득한데
吳姬壓酒喚客嘗.	오 땅 미인 술 맡아 길손 불러 맛보라네.
金陵子弟來相送,	금릉의 젊은이 와서 서로 송별하는데
欲行不行各盡嘗.	떠나는 이 보내는 이 각자 잔만 비우네.
請君試問東流水,	청하노니 그대들 동으로 흐르는 물에 물어나 보게
別意與之誰短長.	이별의 마음과 강물 중에 어느 것이 길고 짧은지.

이 시는 금릉을 떠나는 이백이 금릉의 젊은이들과 하는 송별연의 장면이다. 시의 첫 두 구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봄바람에 버들꽃 흩날리는 봄날, 농익은 술 향이 그윽한 주점에서 주연을 시작하려는 모습이다. 시·공간적 배경의 설명에 차용된 시각(미인), 후각(향기)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버들꽃에 불고)는 酒宴의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어지는 아래 4구는 이별하는 이와 보내는 이 모두 아쉬움에 술잔을 기울이는 정경이다. 특히 이 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두 구

22) <秋夜板橋浦汎月獨酌懷謝朓>, <挂席江上待月有懷> 등.

23) 이백이 금릉에서 이별의 슬픔을 강물에 기탁한 시로는 다음에 살펴볼 <金陵酒肆留別> 외에 <口號>의 “동으로 흐르는 물이 다하지 않는다면, 이별의 정도 응당 그러하리라(東流若未盡, 應見別離情)”, <勞勞亭歌>의 “오랜 정은 동으로 흐르는 물처럼 다함이 없고(古情不盡東流水)”, <金陵歌送別范宣>의 “그대를 보내자니 장강 만 리 같은 마음이네(送爾長江萬里心)”가 있다.

에서는 도치법과 함께, 이별의 정을 長江의 물리적 거리와 비교하는 과장법의 사용으로 이별의 정을 극대화했다.²⁴⁾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이별시 중에는 <천축사로 유람 가는 최씨를 송별하다(送崔十二遊天竺寺)>가 있다. 이 시는 이백이 杭州의 천축사로 떠나는 최씨에게 내년엔 천축사에서 만나 함께 유람하자는 내용이다.²⁵⁾ 또 <광덕으로 가는 한시어를 보내다(送韓侍御之廣德)>는 이백이 韓雲卿을 陶淵明과 같다고 칭송하며, 그를 기쁘게 떠나보내는 내용이다.²⁶⁾ 이들은 앞서 살펴본 <금릉 주점에서 이별하다>²⁷⁾와 함께 이별의 분위기가 경쾌하다. 그러나 이백의 이별 관련 시들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 더욱 많다.

- 24) 郁賢浩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대해 “구체적인 형상인 흘러가는 장강으로 추상적인 이별의 정을 비유하여 의경이 함축적이고, 시의 여운이 깊고 길다. ……이러한 표현수법을 후대에 많은 시인이 모방했다(以具體形象的長江流水, 比擬抽象的離別之情, 意境含蓄而韻味深長, ……這一表現手法爲後代許多詩人效仿)”라고 했다. 郁賢浩, 앞의 책, 792쪽.
- 25) <送崔十二遊天竺寺>: “일찍이 천축사에 대해 듣고는, 꿈에도 동쪽 월나라를 그리워했다네. 해마다 석류나무에 서리 내리고, 계수나무 열매가 가을 달에 떨어진다네. 이곳에 유람 가는 그대를 보내노라니, 이미 꽃은 시들었으리라. 기다리시게 내가 내년엔 가면, 뒤따라 바다에 배 띄울 것이니(還聞天竺寺, 夢想懷東越, 每年海樹霜, 桂子落秋月. 送君遊此地, 已屬流芳歇. 待我來歲行, 相隨浮溟渤.)” 이 시의 3-4구에 대해 郁賢浩는 “시의 3구와 4구 두 구는, 천축사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하였으며, 형상이 생동감이 있고, 익살스럽게 정감을 표현하였다(詩中三四兩句, 描寫天竺寺傳說美景, 形象生動, 逗人情思)”라고 했다. 郁賢浩, 위의 책, 839쪽.
- 26) <送韓侍御之廣德>: “지난날 비단옷의 여사가 어찌 영광스러울까? 오늘 밤 외상술로 그대와 잔 기울이네. 잠시 동산의 달빛을 빌려 와서, 온 밤 술 마시고 흥에 겨워 노래하다 도연명 같은 그대를 보내네(昔日繡衣何足榮, 今宵貰酒與君傾. 暫就東山賒月色, 酣歌一夜送泉明.)” 이 시의 마지막 구에 대해 詹福瑞는 “당대의 도연명이 먼 길로 부임해 가는 것을 환송하네(歡送當代陶淵明赴任遠道)”라고 했다. 詹福瑞·劉崇德·葛景春, 《李白詩全譯》, 河北人民出版社, 1997, 635쪽.
- 27) 郁賢浩는 이 시에 대해 “후대 시인이 흐르는 물로 정감의 정도를 비교할 때 대부분 정조가 시름겹다. 그러나 이백의 이 시는 들뜨고 유쾌한 정서를 표현하였다(後代詩人以流水比擬情感之深長, 多爲愁情; 而李白此詩則表現的是激動歡快的情緒)”라고 평했다.

이별의 슬픔을 내용으로 하는 이백의 시 중에는 <금릉 백하정을 떠나다> 처럼 시 전체가 이별을 노래한 작품도 있지만, 이별의 슬픔 외에 이백의 또 다른 心思를 드러낸 작품도 있다. 예를 들면 <금릉의 노래로 범선과 송별하다>에서는 懷古傷今을 노래했고,²⁸⁾ <금릉의 최시어를 떠나며 19운을 짓다(留別金陵崔侍御十九韻)>에서는 從軍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았다.²⁹⁾ 또 <금릉의 諸公들을 떠나다(留別金陵諸公)>에서는 廬山으로 돌아가 신선술을 연마하여 昇天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했다.³⁰⁾

이별의 슬픔과 함께 언급된 내용 중 시의 哀傷적 정조를 보다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이백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들 수 있다. <금릉에서 다시 동오 지역을 유람하러 가는 장씨를 보내다(金陵送張十一再遊東吳)>를 보자.

張翰黃花句,	장한의 ‘누런 꽃’ 시구가
風流五百年.	오백 년 동안 불려 왔네.
誰人今繼作,	지금은 누가 지어 이을 수 있으랴?
夫子世稱賢.	세상에 훌륭한 인재로 칭송되는 그대라네.
再動遊吳棹,	다시 오 땅을 노 저어 유람하려고
還浮入海船.	또 바다로 들어가는 배를 띄우네.
春光白門柳,	봄빛은 백문의 버드나무를 비추고,

28) <金陵歌送別范宣>: “사십여 명 황제와 삼백 년 세월, 공명과 업적은 강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갔네. ……관모와 수레 닳개는 연무 되어 사라지고, 금수레 옥의자는 차가운 재 되었네. 칼 두드리고 슬피 읊조리며 부질없이 탄식하니, 양나라와 진나라의 백골이 삼대처럼 어지럽네(四十餘帝三百秋, 功名事跡隨東流. ……冠蓋散爲烟霧盡, 金輿玉座成寒灰扣. 劍悲吟空咄嗟, 梁陳白骨亂如麻.)”

29) 이백은 <금릉의 최시어를 떠나며 19운을 짓다>에서 승주자사 왕충신에게 간 알시를 쓸 정도로 등용을 갈망했으나, 병으로 끝내 중군하지 못하게 되자 “회계의 치욕을 씻길 원했으며, 영예롭게 나라에 보답하기를 기대했네. 중도에 병들어 돌아오니, 동남쪽을 정벌할 수 없게 되었네(願雪會稽恥, 將期報恩榮. 半道謝病還, 無因東南征)”라고 아쉬워했다.

30) <留別金陵諸公>: “향로봉에는 자춧빛 연기 사라지고, 폭포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네. 만약 별을 잡고 올라간다면, 손을 흔들어 멀리서 그리워하리(香爐紫烟滅, 瀑布落太清. 若攀星辰去, 揮手緬含情.)”

霞色赤城天.	노을빛은 적성산의 하늘에 물들었겠지.
去國難為別,	수도를 떠나 이별하기란 힘겨운 것인데
思歸各未旋.	돌아가고 싶어도 각자 돌아가지 못하네.
空餘賈生淚,	부질없이 가의처럼 눈물 흘릴 뿐이니
相顧共淒然.	서로 돌아보며 같이 처량해하네.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이백이 장안을 떠나 漫遊하던 시기이다. 이백은 현종의 부름을 받아 한림공부를 지냈으나, 결국에는 모함으로 사직하고 장안을 떠나야만 했다. 그래서 궁궐에 있을 때는 간신의 모함으로 방황하며 흘러가는 세월을 탄식했고,³¹⁾ 조정을 떠나서는 功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³²⁾ 이러한 이백의 처지는 참언으로 좌천되어 失意한 채 남쪽 지역에서 방황했던 賈誼의 삶과 상당히 잇닿아 있다.³³⁾ 시의 마지막 구에서 이백은 조정에 나아가 쓰임 받지 못했고, 물러나 나라를 위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가의의 기구한 운명에 자신의 삶을 투영했다.³⁴⁾ 따라서 이 시는 이백의 懷才不遇한 신세와 유랑하며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아픔이 張氏를 보내며 느끼는 이별의 슬픔과 융화되어 이백의 처량한 정조를 더욱 깊게 드러냈다.

31) 〈答高山人兼呈權顧二侯〉: “참언으로 빼어난 임금의 마음을 현혹하여, 은총이 간신의 계략에 소원해졌네. 궁궐 아래에서 방황하며, 흘러가는 세월을 탄식했네(讒惑英主心, 恩疏佞臣計. 徬徨庭闕下, 歎息光陰逝).”

32) 〈燕臣昔慟哭〉: “나는 정녕 무슨 허물이 있기에, 금궐에서 멀리 있는가?(而我竟何辜, 遠身金殿傍).”

33) 〈金陵送張十一再遊東吳〉보다 뒤에 지어진 것으로 이백이 자신을 가의에 비유한 작품으로 〈與史郎中飲聽黃鶴樓上吹笛〉과 〈放後遇恩不濡〉이 있다.

34) 朱諫은 마지막 두 구에 대해 “나는 가의처럼 나아가서는 조정에 등용되지 못했고, 물러나서는 나라를 위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운명이 기구하다. 갈림길에 이르러 눈물 흘리며, 처량하게 서로 돌아보니, 진실로 슬프다(我如賈誼, 進不見用於朝廷, 退不得志於王國, 命途多舛, 臨歧下泣, 悽然相顧, 良可悲也)”라고 해석했다. 詹鍔,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百花文藝出版社, 2011, 2449쪽.

2. 회고 관련 情懷

이백이 금릉에서 옛날을 회고하며 지은 시는 총 14題 16首이다.³⁵⁾ 이 가운데는 육조의 옛 도읍지였던 금릉을 회고한 시가 대부분이며,³⁶⁾ 이들 시에는 哀傷의 情懷를 묘사한 경우가 많다. <금릉 백양의 십자항(金陵白楊十字巷)>을 예로 들면, “천지가 여러 번 뒤집히더니 궁성이 모두 무너져 버렸네. 육조 제왕의 무덤만 남아있으니, 나무하고 풀 베는 모습에 늙은이 눈물 흘리네(天地有反覆, 六帝餘古丘. 宮城盡傾倒, 樵蘇泣遺老)”라고 悲嘆했다.

이백의 회고시에는 육조의 霸業이나 功名과 事績, 옛 고관대작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강물 따라 흘러가 버려 완전히 ‘소멸’해 버렸음을 언급하거나,³⁷⁾ 육조의 敗亡 뒤에 남겨진 古都의 ‘쇠락’한 모습을 묘사하여 영고성쇠의 무상함을 드러냈다.³⁸⁾ 소멸과 쇠락의 금릉 이미지를 모두 묘사한

35) <登瓦官閣>, <金陵望漢江>, <金陵三首>, <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 <金陵白楊十字巷>, <金陵歌送別范宣>, <月夜金陵懷古>, <登金陵鳳皇臺>, <登梅崗望金陵贈族姪高座寺僧中孚>, <燕臣昔慟哭>, <金陵鳳凰台置酒>, <春日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 <對酒(勸君莫拒盃)>, <金陵新亭> 이상 14題 16首.

36) 금릉을 회고하지 않은 작품으로 <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은 동진의 재상 謝安의 공적을, <金陵新亭>은 동진의 충신 王導의 일을, <燕臣昔慟哭>은 연나라 신하 鄒衍의 일을 회고했다.

37) <金陵歌送別范宣>: “사십여 명 황제와 삼백 년 세월, 공명과 사적은 강물 따라 동으로 흘러갔네(四十餘帝三百秋, 功名事跡隨東流).”

<登梅崗望金陵贈族姪高座寺僧中孚>: “장강으로 흘러드는 아홉 물줄기는, 구름가 저 멀리서 반짝이다 사라지네. 때가 바뀌어 천운이 떠나니, 용과 범의 기세가 다 했구나(江水九道來, 雲端遙明沒. 時遷大運去, 龍虎勢休歇).”

<金陵三首>其一: “제왕의택지이고, 산은 용호가 서린 곳이라네. 금릉의 장관은 텅 비었고, 장강의 세찬 물결은 고요해졌네(地即帝王宅, 山爲龍虎盤. 金陵空壯觀, 天塹淨波瀾).”

<金陵三首>其三: “옛 궁전의 오나라 화초, 깊은 궁궐의 진나라 옷 입은 여인들. 모두 세상사와 함께 사라졌고, 푸른 물결 따라 동으로 흘러가 버렸네(古殿吳花草, 深宮晉綺羅. 併隨人事滅, 東逝與滄波).”

38) <春日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 “옛날에는 황제의 궁궐 정원이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나무와 풀을 베는 곳이라네(古之帝宮苑, 今乃人樵蘇).”

〈달밤에 금릉에서 회고하다(月夜金陵懷古)〉를 보자.

蒼蒼金陵月,	몽롱한 금릉의 달
空懸帝王州.	부질 없이 제왕의 도읍에 걸려있네.
天文列宿在,	하늘에 늘어선 별자리는 여전한데
霸業大江流.	패업은 장강 따라 흘러갔네.
綠水絕馳道,	맑은 물은 천자가 말달리던 길을 끊었고
青松摧古丘.	푸른 소나무는 옛 무덤을 허물었네.
台傾鸚鵡觀,	臺城에는 지작관의 누대가 기울어져 있고
宮沒鳳凰樓.	궁궐에는 봉황루가 사라져 버렸네.
別殿悲清暑,	청서 별궁이 보이지 않아 슬픈데
芳園罷樂遊.	향기로운 낙유원도 황폐해졌네.
一聞歌玉樹,	〈옥수후정화〉노래를 한번 들으니
蕭瑟後庭秋.	뒤뜰의 가을이 스산하여라.

시의 앞에 있는 네 구는 영원불변의 자연과 소멸해 버린 육조 제왕의 霸業을 서로 대비시켜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지는 여섯 구는 개별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끊어진 길’, ‘허물어진 무덤’, ‘기울어진 누대’, ‘사라진 봉황루’, ‘보이지 않는 청서 별궁’, ‘황폐한 낙유원’으로 쇠락한 금릉의 모습을 상세히 그렸다. 시 전체가 소멸과 쇠락의 금릉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 시에 흐르는 정조가 자못 처량하고 쓸쓸하다.

이백은 회고를 통해 느낀 無常함을 及時行樂으로 전환하려고도 했다. 이백이 금릉에서 급시행락을 노래한 시는 3수인데, 〈금릉 봉황대에 술상을 차려 놓다(金陵鳳凰台置酒)〉와 〈봄날 강령 현령 양이물과 여러 관리를 모시고 북호에서 연회하다가 옛일이 떠올라 짓다(春日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 〈술을 마주하다(對酒)〉이다. 시에서는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거나 懷才不遇를 애석해하는 이백의 감개와 함께 회고를 통한 영고성쇠의

〈登金陵鳳皇臺〉: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외딴길에 묻혀 있고, 진나라 때 고관은 오래된 무덤 되었네(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丘).”

덧없음을 언급하며 인생을 즐길 것을 노래했다.³⁹⁾ 그 예로 <술을 마주하다>를 보자.

勸君莫拒盃,	그대에게 권하노니 술잔 거절하지 마시게
春風笑人來,	봄바람이 미소 띠며 불어온다네.
桃李如舊識,	복사꽃 오얏꽃은 예부터 아는 사이인 듯하고
傾花向我開,	꽃송이는 기울어 나를 향해 피었네.
流鶯啼碧樹,	이리 저리 나는 피꼬리 푸른 나무에서 지저귀고
明月窺金壘,	밝은 달은 금 술동을 몰래 훑쳐보네.
昨來朱顏子,	어제는 붉은 얼굴이었는데
今日白髮催,	오늘은 백발을 재촉하네.
棘生石虎殿,	가시나무는 석호의 궁전에서 자랐고
鹿走姑蘇臺,	사슴은 고소산의 누대에서 뛰어다녔네.
自古帝王宅,	예로부터 제왕이 사는 곳이었건만
城闕閉黃埃,	성궐은 누런 먼지로 뒤덮였네.
君若不飲酒,	그대 만약 술 마시지 않는다면
昔人安在哉,	옛 호걸들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이 시는 술을 권하며 봄날을 즐길 것을 노래한 것이다. 시에서는 춘풍, 달, 봄 술, 꽃, 피꼬리가 있는 봄날의 아름다운 시절을 배경으로 했다. 이

39) <春日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 “안연지가 훌륭한 글을 지어 바치니, 멀리 옛 시인의 품모 갖추었다지. 나는 이에 미치지 못해, 홀로 종산에 외로이서 있네. ……옛날에는 황제의 궁궐 정원이었건만, 지금은 사람들이 나무와 풀을 베는 곳이 되었네. 이에 애달파서 한 잔을 권하니, 그대들은 술잔을 다 비우시오. 한창때에 응당 즐겨야 할지니, 후세의 현자들이 탄식하지 않도록 하시게(延年獻佳作, 邈與詩人俱. 我來不及此, 獨立鐘山孤. ……古之帝宮苑, 今乃人樵蘇. 感此勸一觴, 願君覆瓢壺. 榮盛當作樂, 無合後賢吁.)”

<金陵鳳凰台置酒>: “호걸은 쓸모가 없어져, 거문고나 타며 금 술독에 취하네. 봄바람 불어 산 꽃 피니, 어찌 술잔을 비우지 않으리오. 육조의 제왕은 그옥한 풀 밑에 묻혔고, 깊었던 궁궐은 푸른 이끼로 뒤덮였네. 궁궐 깊은 곳은 푸른 이끼로 어둑하네. 술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지니, 노랫소리 종소리가 술잔을 재촉할 뿐이네(豪士無所用, 彈絃醉金壘. 東風吹山花, 安可不盡杯. 六帝沒幽草, 深宮冥綠苔. 置酒勿復道, 歌鍾但相催.)”

러한 시공간적 배경은 오히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상실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백은 ‘어제는 붉은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백발을 재촉하네’라고 탄식했다. 시에서는 세월의 빠름을 언급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영고성쇠가 덧없는 世事の 이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과거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옛 궁궐이 현재 먼지만 쌓여 있는 상황을 통해 無常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함에서 오는 슬픔을 이백은 즐거움의 추구로 선회했다.

금릉에서 급시행락을 노래한 시 3편은 이백이 40대 이후에 지은 것이다.⁴⁰⁾ 이 시기 이백은 여전히 功名の 갈망이 있었기에 流水와 같은 세월과 不遇한 자신의 처지를 애석히 여겼다. 게다가 금릉에서 느낀 영고성쇠의 무상함은 시인의 마음을 더욱 애달프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백은 허무주위나 염세주의로 흐르는 대신 급시행락을 추구했다. 이백에게 급시행락은 인생의 고통을 회피하며 즐기는 쾌락도 아니고, 현실과 이상의 갈등을 극복한 초탈의 경지도 아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백이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했던 자신을 위로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하겠다.⁴¹⁾

한편 이백은 금릉을 회고하는 가운데 唐 왕조의 절망적인 정치 상황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릉의 봉황대에 오르다>를 보자.

鳳皇臺上鳳皇遊,	봉황대에 봉황이 노닐었는데
鳳去臺空江自流.	봉황이 떠난 빈 누대에는 강물만 여전히 흐르네.
吳宮花草埋幽徑,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외딴길에 묻혔고
晉代衣冠成古丘.	진나라 고관들은 옛 무덤이 되었네.

40) 시의 창작시기를 보면, <金陵鳳凰台置酒>는 詹鐸 761년, 安旗 748년, 郁賢皓 747년으로, <春日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은 첨영, 안기, 옥현호 모두 754년으로, <對酒>는 첨영 이백의 말년, 안기 762년, 옥현호 761년으로 보았다.

41) “鮑照的行樂思想與陸機不同，有的是產生於求取功名受到挫折之時，如<擬青靑陵上柏>，……很顯然，因為求取功名沒有結果，有感於虛度華年，才尋求聲色之樂，以獲得心理上的寬慰。‘娛生信非謬，安用求多賢’，實為感憤之語。這樣的思想在李白詩中也常有表現。” 詹福瑞，〈魏晉劉宋詩文建功立業與及時行樂的生命取向〉，《清華大學學報》，2020，43쪽.

三山半落青天外,	삼산은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걸쳐 있고
一水中分白鷺洲.	한 줄기 강물은 백로주에서 갈라져 흐른다.
總爲浮雲能蔽日,	온통 뜬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
長安不見使人愁.	장안이 보이지 않아 사람을 근심하게 하네.

봉황대는 南朝 때 금릉에 지은 건축물이다. 그리고 봉황은 천하가 안정되고 임금이 仁德이 있을 때 나타나는 길조로, 왕조의 興盛을 상징하는 새이다. 길조인 봉황이 떠나가고, 오나라 궁궐의 아름다운 화초가 궁벽한 곳에 묻혔으며, 진나라의 부귀와 권세를 누렸던 귀족들이 무덤으로 남은 금릉의 廢頽한 모습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구는 이 시의 주제라 할 수 있다. 간신배의 참언과 아첨으로 임금의 총명함을 가려 어진 신하의 등용을 막는 장안의 암울한 정치 현실을 비유했다. 아울러 조정을 생각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이백의 우국충정을 나타냈다.⁴²⁾

〈금릉의 봉황대에 오르다〉가 당 왕조의 정치를 비판한 것이라면, 〈금릉에서 한수를 바라보다(金陵望漢江)〉는 황폐하게 변한 육조 도읍 금릉을 쓸쓸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잘 다스려진 현재의 금릉을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본 작품이다.

漢江廻萬里,	한수가 만 리를 굽어 돌아
派作九龍盤.	물줄기 갈라지며 九龍처럼 굽어쳐 흐르네.
橫潰豁中國,	물이 범람하여 중원 땅을 휩쓸고
崔嵬飛迅湍.	센 물살은 날아가듯 빨리 내달리네.
六帝淪亡後,	여섯 왕조가 멸망한 후에
三吳不足觀.	강동 땅은 볼만한 게 없네.

42) 이백의 금릉 회고시 〈燕臣昔慟哭〉도 당나라의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이백의 情操가 〈登金陵鳳皇臺〉와 비슷하다. “예전에 연나라 신하 추연이 통곡하니, 오월에도 된서리 휘날렸더라. ……뜬구름이 황궁을 가리니, 백일은 빛을 되돌리기 어렵네. 모래는 밝은 구슬을 더럽히고, 잡초는 외로운 향초를 뒤덮었네. 예부터 모두가 탄식하는 것이니, 눈물 흘리며 공연히 옷을 적시네(燕臣昔慟哭, 五月飛秋霜. ……浮雲蔽紫闥, 白日難回光. 群沙蔽明珠, 眾草凌孤芳, 古來共歎息, 流淚空沾裳.)”

我君混區宇, 우리 임금께서 천하를 통일하니
 垂拱衆流安. 옷소매 늘어뜨리며 공수해도 많은 물결이 안정되었네.
 今日任公子, 오늘 임공자는
 滄浪罷釣竿. 푸른 물결의 낚싯대를 거두네.

이백의 시에서 금릉은 주로 제왕의 패업이 사라진 쓸쓸한 곳으로 묘사되었다. 그런데 이 시는 상반된 두 개의 금릉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나는 亂世 때의 금릉을 회고하며 바라본 쇠락한 금릉이다. 다른 하나는 治世 때인 현재의 금릉을 생각하며 바라본 안정된 금릉이다. 시의 전반 6구는 육조 도읍지 금릉이 잦은 왕조 교체와 전란으로 예전의 번영을 잃은 모습을 그렸다. 시의 후반 4구는 태평 시대를 맞아 大盜가 없는 평온해진 금릉을 그린 것으로 현 왕조를 찬미하고 있다. 이백은 금릉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옛 번영을 잃은 쓸쓸함과 천하태평을 맞은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는 양가(兩價)적 감정을 시에서 드러냈다.

3. 遊樂 관련 情懷

이백은 금릉에 와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여인에게 장난스럽게 수작을 걸었다.⁴³⁾ 또한 妓樓나 야외에서 기녀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술을 마주하다(對酒)〉에서는 아름다운 기녀와 歡樂에 취하여 “푸른 먹으로 눈썹 그리고 붉은 비단신 신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사랑스럽게 노래 부르네. 호화로운 연회에서 품에 안겨 취했으니, 연꽃 장막에서 그대를 어찌하랴(靑黛畫眉紅錦靴, 道字不正嬌唱歌. 玳瑁筵中懷裏醉, 芙蓉帳裏奈君何)”라고 했다. 〈단씨 아가씨에게 주다(贈段七娘)〉에서는 기녀에게 반해서 “잘 익은 술 천 잔에 취하는 것을 어찌 사양하리.

43) 〈거리에서 미인에게 주다(陌上贈美人)〉: “준마가 우쭐대며 떨어진 꽃잎을 밟고 지나가더니, 채찍 늘어뜨려 바로 오운거를 스치네. 미인이 한 빈 옷으며 주렴 들어 올리고는, 멀리 가리키며 붉은 누대가 자기 집이라 하네(駿馬驕行踏落花, 垂鞭直拂五雲車, 美人一笑褰珠箔, 遙指紅樓是妾家.)”

붉게 화장한 얼굴 한 번 보니 애타도록 몹시 괴롭구려(千杯綠酒何辭醉, 一面紅妝惱殺人)”라고 했다.⁴⁴⁾

이러한 시를 보면, 이백이 향락적이고 방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나라 때는 성이 개방적이어서, 연애가 비교적 대담했다. 또한 창기업(倡妓業)이 매우 성행하여 많은 관료 귀족이나 문인 묵객들이 화류계에 드나들었다. 이백이 기녀와의 사랑을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여인에게 장난스럽게 수작을 거는 내용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당나라의 개방적인 성문화와 관련 있다.⁴⁵⁾

이백이 기녀를 데리고 즐겨 놀았던 것은 謝安의 영향도 있다. 사안은 기녀를 데리고 동산을 유람하며 세속을 초월한 삶을 살았다. 이백은 그러한 사안의 삶을 부러워했으며,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금릉자에게 주다(示金陵子)>에서는 “사안이 동산의 기녀를 부른 것처럼, 손 잡고 산림 곳곳을 다니러 하네(謝公正要東山妓, 攜手林泉處處行)”라고 했다. 이백은 기녀 금릉자를 데리고 사안의 동산에서 노닐었는데, <동산의 노래(東山吟)>는 이백이 금릉자와 함께 사안의 동산에서 사안을 애도하며 지은 것이다.

攜妓東土山,	기녀를 이끌고 동산에서 놀다가
悵然悲謝安.	망연히 사안을 슬퍼하네.
我妓今朝如花月,	내 기녀는 오늘 아침 꽃과 달 같은데,
他妓古墳荒草寒.	그의 기녀는 옛 무덤의 싸늘한 거친 풀이 되었네.

44) 遊樂 관련 시로는 본 절에서 언급된 시 외에 <出妓金陵子呈盧六首>, <白紵辭3首>가 있다.

45) 武舟의 《中國妓女生活史》에서는 당나라 때 성문화가 비교적 개방적이어서 궁정에서 도시까지, 귀족에서 민간까지 첩을 거닐거나 기녀와 놀았으며, 과부도 개가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주가 사통하고, 사대부가 짝사랑하는 스캔들이 흔했다고 했다. “由此也可以窺見唐代性文化比較開明之一斑, 因而從宮庭到都市, 從貴族到民間, 不僅男子可以納妾鉀妓, 寡婦也可以改適他人, 至於公主偷情, 士子私戀的風流韻事也屢見不鮮.” 武舟, 《中國妓女生活史》, 湖南文藝出版社, 1990, 89쪽.

白雞夢後五百歲,	흰 닭 꿈을 꾸 후 오백 년이 지났건만
洒酒澆君同所權.	술을 뿌려 그대에게 부으며 함께 즐거워하네.
酣來自作青海舞,	거나해져 절로 청해무를 추는데
秋風吹落紫綺冠.	가을바람 불어와 자줏빛 비단 관을 떨구네.
彼亦一時,	그때도 한때이고,
此亦一時.	이때도 한때라네.

浩浩洪流之詠何必奇? ‘넓고 큰 강물’을 노래한 일이 뭐가 그리 기이할까?

사안은 會稽의 동산에서 은거했다. 그런데 관직 때문에 금릉에 오게 되자 회계의 동산을 생각하며 금릉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 시는 바로 이백이 금릉에 있는 동산에 올라 사안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시에서 이백은 사안처럼 기녀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와 연회를 열었다. 시의 전반 4구에서는 이미 옛사람이 된 사안과 그의 기녀를 애도하고 있다. 중반 4구는 사안을 위해 술을 뿌려 그를 추모하며, 사안의 영혼과 함께 춤추며 즐기는 모습이다. 마지막 3구는 桓溫이 사안을 죽이려 했음에도 嵇康의 시를 읊으며 태연하게 대응했던 사안의 기개를 말하면서, 사안마저도 세월 따라 떠나가 버린 인생무상의 덧없음을 노래했다.

한편, 이백은 연회에서 遊樂하는 가운데, 고아한 풍류를 즐겼다. <금릉성 서쪽 손초주루에서 달구경 하다 새벽이 되고, 노래 부르고 연주하다 날이 저무니, 술김에 자기구와 오사건을 갖추고 여러 술친구와 뱃노래 부르며 진회에서 석두성으로 가서 최시어를 방문하다(翫月金陵城西孫楚酒樓達曙歌吹日晚乘醉著紫綺裘烏紗巾與酒客數人棹歌秦淮往石頭訪崔四侍禦)>는 이백의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략)

月下—見君,	달 아래서 그대 만나자
三杯便廻櫂.	석 잔술을 마시고 바로 배를 돌렸네.
捨舟共連袂,	배를 버리고 함께 소매를 나란히 하고
行上南渡橋.	남쪽 나루터의 다리를 올라갔네.

興發歌綠水,	흥이 일어 <녹수곡>을 부르니
秦客爲之搖.	진나라 나그네가 이에 맞춰 손을 흔드네.
雞鳴復相招,	닭이 울자 다시 서로 만나니
清宴逸雲霄.	우아한 연회의 초탈한 흥취가 하늘보다 높네.
贈我數百字,	내게 수백 자의 글을 주니
字字凌風飄.	글자마다 광풍이 일듯하네.
繫之衣裘上,	이것을 갖옷에 묶어 두고
相憶每長謠.	그대 생각날 때마다 길게 노래하리라.

崔成甫는 飲酒八仙 중 한 사람으로 술을 매우 좋아했고, 이백처럼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⁴⁶⁾ 그래서 금릉에서 이백과 자주 어울렸는데, 이 시는 이백이 최성보를 찾아가 함께 연회를 즐기는 내용이다. 이백이 흥이 일어 <녹수곡>을 부르자 최시어가 박자를 맞추며 화답하는 장면과 연회에 감도는 고아하고 탈속적인 흥취는 자유분방한 두 사람이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다.

4. 그리움 관련 情懷

이백이 금릉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는 모두 9수이다.⁴⁷⁾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그리움의 대상은 이백의 자녀와 옛사람 謝朓이다. 이백은 자녀를 그리워하며 3수의 시를 지었고, 사조를 생각하며 또한 3수의 시를 지었다.

46) 《舊唐書·李白傳》: “감찰어사 최중지는 좌천되어 금릉으로 부임해 와서, 이백과 술과 시로唱和했다. 일찍이 달밤에 배를 타고 채석기에서 금릉으로 왔다. 흰 궁면포를 입었으며, 배에서 돌아보며 기개 있게 웃는데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듯했다(侍御史崔宗之謫官金陵, 與白詩酒唱和, 嘗月夜乘舟, 自采石達金陵, 白衣宮錦袍, 於舟中顧瞻笑傲, 傍若無人).”

47) 본 절에서 언급된 시 외에 <長干行2수>중 제1수, <東山吟>, <挂席江上待月有懷>가 있다.

① 이백의 자녀

이백은 두 번 결혼했고, 두 번 동거했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첫 부인인 허씨에게서 딸과 아들을 얻었고, 동거했던 노 땅의 여인에게서 아들 顏黎를 두었다.⁴⁸⁾

이백의 작품에는 아들 파려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단지 첫 부인에게서 낳은 딸 平陽과 아들 伯禽에 대해서만 몇 편의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금릉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동로로 가는 양연을 보내다(送楊燕之東魯)>, <노땅으로 가는 소씨를 보내며, 이에 겸해 내 자식 백금의 안부를 묻다(送蕭三十一之魯中兼問稚子白禽)>, <동로의 두 아이에게 부치다(寄東魯二稚子)>이다.

<동로로 가는 양연을 보내다>와 <노 땅으로 가는 소씨를 보내다. 이에 겸해 내 자식 백금의 안부를 묻다>는 송별의 내용에 자녀를 그리워하거나 자녀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다. 반면, <동로의 두 아이에게 부치다>는 이백이 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자녀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시 전체에 담겨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吳地桑葉綠,	오 땅의 뽕잎은 푸르고
吳蠶已三眠.	오 땅의 누에는 이미 세 번 잠을 잤네.
我家寄東魯,	우리 가족은 동로에 기거하는데
誰種龜陰田?	누가 귀산 북쪽 밭에 씨를 뿌릴까?
春事已不及,	봄 농사는 이미 때를 놓쳐서
江行復茫然.	배 타고 돌아가려 해도 막막하여라.
南風吹歸心,	남풍 불어 돌아가고픈 마음을
飛墮酒樓前.	날려서 주루 앞에 떨어뜨리네.

48) 《李翰林集序》: “이백은 처음에는 許氏를 아내로 맞이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明月奴라고 했고, 딸은 이미 시집가서 죽었다. 또 劉氏와 살았는데, 유씨와 헤어지고, 그다음은 노 땅의 어느 부인과 살았으며, 아들을 낳았으니 顏黎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宗氏를 아내로 맞이했다(白始娶於許, 生一女一男, 男曰明月奴, 女既嫁而卒. 又合於劉, 劉訣, 次合於魯一婦人, 生子曰顏黎, 終娶於宗).”

樓東一株桃,	주루 동쪽 복숭아나무 한 그루
枝葉拂青煙.	가지와 잎이 푸른 연무 털어내네.
此樹我所種,	이 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別來向三年.	이별한 지 3년이 되어가네.
桃今與樓齊,	복숭아나무는 지금 주루만큼 자랐겠지만
我行尚未旋.	나는 떠나와 아직 돌아가지 못하네.
嬌女字平陽,	사랑스런 여식은 이름이 평양인데,
折花倚桃邊.	꽃을 꺾으며 복숭아나무에 기대어 있겠지.
折花不見我,	꽃을 꺾으며 내가 보이지 않아
淚下如流泉.	눈물을 샘물처럼 흘리리라.
小兒名伯禽,	어린 아들은 이름이 백금인데
與姊亦齊肩.	누이와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겠지.
雙行桃樹下,	둘이 복숭아나무 아래로 가면
撫背復誰憐?	등을 어루만져 주며 또 누가 예뻐할까?
念此失次第,	이를 생각하니 심란해져
肝腸日憂煎.	마음은 날로 애를 끓이네.
裂素寫遠意,	흰 명주 찢어 먼 이별의 마음 적노라니
因之汶陽川.	이참에 문양의 하천에 보내보네.

이백의 자녀는 安陸에서 東魯로 온 이후 오랫동안 동로에 거주했다.⁴⁹⁾ 이백은 동로에서 천자의 명을 받들어 長安으로 갔으나, 장안에서 얼마 되지 않아 한림공봉을 사직하고 동로로 돌아왔다. 그리고 천보4-5년(745~746)경 다시 동로를 떠나 강남지역을 유람했으며, 동로를 떠난 지 3년쯤 금릉에서 이 시를 지었다. 시를 지을 당시 평양과 백금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제4구에서 ‘누가 귀산 북쪽 밭에 씨를 뿌

49) 이백이 東魯에 온 이유와 시기에 대해 慧泉은 736년 허씨 부인이 죽게 되자 이백은 안륙의 허씨 가문에 더 이상 의존하며 살기 어려워 자녀를 데리고 동로로 옮겨왔다고 보았다. “唐開元末年(約736年), 許氏夫人不幸病逝, 這可是對李白家庭上的重大打擊, 有許夫人在, 對他們兩個小孩的育養照料, 是不成什麼問題的, 許家人里也不能公開反對, ……時年36歲的李白, 驟然間感到了內外交困的巨大壓力, 他是很難再呆在安陸許家了, 匆忙間攜兒帶女, 移居到東魯(山東)之地。” 慧泉, 〈李白婚姻帶來的家庭悲劇〉, 《文史天地》, 2009, 53-54쪽.

릴까?’라며 이백이 근심한 것이나, <노 땅으로 가는 소씨를 보내며, 이에 겸해 내 자식 백금의 안부를 묻다>에서 “그대 가면 바로 백금을 알아볼 터이니, 흰 양이 끄는 조그만 수레를 몰고 있을 것이네(君行既識伯禽子, 應駕小車騎白)”라고 한 것으로 보아, 농사를 지을 만큼 長成하지 않은 아마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일 것으로 짐작된다.⁵⁰⁾

본 시에서 이백은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하지만, 이백의 그리움에는 ‘날로 애를 끊이는’ 것과 같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과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었다.⁵¹⁾ 이는 이백의 심리 基底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안함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백의 결혼생활과 관련 있다.⁵²⁾ 이백은 첫 부인 許氏가 세상을 떠난 이후, 東魯에서 劉氏 및 노 땅 여인과 동거를 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한 기간은 길지 않았다.⁵³⁾ 또한 <동로의 두 아이에게 부치다>를 지

50) 이백의 자녀 나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詹鎔은 자녀 둘 다 십여 세로 보았고, 郭老는 평양의 나이를 스무서너 살로 보았다. “按〈南陵別兒童入京〉詩謂‘兒女嬉笑牽人衣’, 度其時白之兒女蓋在三五歲間, 今兒女齊肩, 則已屆十齡左右矣.” 詹鎔, 앞의 책, 1983쪽.

“〈送蕭三十一之魯中兼問稚子伯禽〉一詩, 卻只提伯禽‘君行既識伯禽子, 應駕小車騎白羊.’ 此詩郭老認爲作於天寶八年夏, 應是. ……按郭老的推算, 平陽此時已有二十三、四歲的光景, 這對封建時代的女子來說, 早應是當嫁的時候了.” 李從軍, 〈李白家室考辨〉, 《杭州大學學報》第2期, 1981, 72쪽.

51) 이백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극도의 감정으로 표현했다. <送楊燕之東魯>에서는 “그대가 이 길(東魯)로 간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샘처럼 흐르네(因君此中去, 不覺淚如泉)”라고 했고, <送蕭三十一之魯中兼問稚子伯禽>에서는 “삼 년 동안 돌아가지 못해 부질없이 애간장 끊어지네(三年不歸空斷腸)”라고 했다.

52) 周勛初는 이백의 비극적 결혼생활과 연관 지어 이백이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寄東魯二稚子>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但李白把許氏所生的子女寄養在魯地, 總得有人照料, 照料子女的人, 可能曾與李白有同居關係, 可能沒有什麼關係, 不管怎樣, 對於子女的成長總是極爲不利的, 這點李白也深有所知, 而且可以說是負疚於心的. 他在好些詩中表達了這種情緒.” 周勳初, 〈李白兩次就婚相府所鑄成的家庭悲劇〉, 《文學遺產》第6期, 1994, 38쪽.

53) 李從軍은 이백이 劉氏와는 1년 정도 살았고, 노 땅 여인과는 천보 3년(744)에

을 당시 이백은 이미 宗씨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宗씨는 이백의 자녀와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⁵⁴⁾ 이처럼 이백은 자녀를 돌봐줄 여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를 통해 이백의 자녀가 줄곧 동로에서 외롭게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시에서 이백은 ‘돌이 복숭아나무 아래로 가면, 등을 어루만져 주며 또 누가 예뻐할까?’라고 했다. 이는 바로 이백의 자녀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백은 돌봐 줄 이 없는 동로에서 어린 자녀가 외롭게 지내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하나는 이백의 방황과 관련 있다. 이백은 시에서 자신의 방황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지 못했음을 밝혔다. 즉 ‘복숭아나무는 지금 주루만큼 자랐겠지만, 나는 떠나와 아직 돌아가지 못하네’라고 했다. <동로로 가는 양연을 보내다>에서도 “일단 금화전을 물러나고 보니, 장강 주위를 길 잃고 어정거리네. 두 자식은 노 땅 성문 동쪽에 있는데, 이별한 지 이미 한 해가 지났네(一辭金華殿, 躑躅長江邊. 二子魯門東, 別來已經年)”라고 했다. 이백은 동로에 주거를 정했지만, 동로를 떠나 오랫동안 유람을 하거나 은거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시를 지을 당시만 해도 이백은 여전히 漫遊 중이었고, 또한 방황하고 있었다. 여러 곳을 유랑하며 동로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백은 자녀가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꽃을 꺾으며 내가 보이지 않아, 눈물을 샘물처럼 흘러리라’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이백은 자녀의 기다림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돌아갈 수 없었기에 자녀를 그리워하며 깊은 아픔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살았으며, 宗氏와는 천보 6년(747) 이후에 결혼했다고 보았다. “許氏夫人約在開元二十六年去世的……開元二十九年, 李白與劉氏結合, 一年即訣離. 李白於天寶三年又與魯一婦人結合. 劉氏與魯一婦人皆非正配. 天寶六年以後, 李白最後娶宗氏爲妻.” 李從軍, 앞의 책, 76쪽.

54) 周勛初는 이백이 데릴사위의 신분이었으므로, 宗氏가 이백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백 또한 자녀를 종씨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불편해했다고 보았다. “實際上是贅婿的身份, 這樣宗氏自然不願負擔母親的責任, 李白也不便把子女接到宗府中去了.” 周勳初, 앞의 책, 38쪽.

② 謝朓

이백은 謝朓를 좋아해서 사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謝公亭과 謝朓樓, 謝公宅과 같은 유적지를 방문했고, 사조가 다녀갔던 敬亭山과 三山을 가서 그를 생각하며 시를 지었다. 또한 자신의 시에 사조의 詩句나 詩意를 빌려 쓰기도 했다.

금릉에 온 이백은 사조가 다녀갔던 판교포와 신림포에서 사조를 그리워했으며, 달빛 빛나는 금릉의 밤에 술을 마시며 그를 떠올렸다. 이백이 금릉에서 사조를 생각하며 지은 시는 <가을밤 판교포에서 달밤에 배 띄우고 홀로 술 마시다 사조를 그리워하다(秋夜板橋浦汎月獨酌懷謝朓)>, <신림포에서 바람에 막히자 벗에게 부치다(新林浦阻風寄友人)>, <금릉성 서루의 달빛 아래에서 읊다(金陵城西樓月下吟)>이다. 이 가운데 사조의 문학적 재능을 흠모하며 사조를 그리워한 시 <가을밤 판교포에서 달밤에 배 띄우고 홀로 술 마시다 사조를 그리워하다>를 먼저 보자.

天上何所有?	하늘에는 무엇이 있는가?
迢迢白玉繩。	저 멀리 하얀 옥승성이 있네.
斜低建章闕。	건장궁에 비스듬히 낮게 드리워
耿耿對金陵。	반짝거리며 금릉의 산을 마주하고 있네.
漢水舊如練。	한수는 옛날처럼 누인 명주 같고
霜江夜清澄。	서리 내린 강은 밤중에 맑고 깨끗하네.
長川瀉落月。	큰 강은 지는 달 쪽으로 세차게 흘러가고
洲渚曉寒凝。	모래섬엔 새벽의 한기가 서려 있네.
獨酌板橋浦。	판교포에서 홀로 술 마시며
古人誰可徵?	옛 사람 중 누구를 부를 만한가?
玄暉難再得。	사조를 다시 만나기 어려워
灑酒氣填膺。	강에 술을 뿌리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시의 전반부인 제1구에서 8구까지는 판교포의 가을밤 풍경을 읊었다. 남조 제나라 시인 사조는 도읍지였던 금릉의 경관을 시에서 많이 묘사했

다. 이백은 이 시에서 사조가 금릉을 묘사했던 語句나 詩意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조를 불러들였다. ‘옥승성(玉繩)’, ‘건강궁에 비스듬히 낮게 있네(斜低建章闕)’, ‘반짝거리는(耿耿)’, ‘명주 같은(如練)’이 그것이다.⁵⁵⁾ 시의 후반부인 제9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전반부에 언급된 사조의 주옥 같은 시를 생각하며 사조를 그리는 정을 나타냈다. 이백은 사조의 문학적 재능을 높이 평가했는데,⁵⁶⁾ 금릉의 아름다운 풍광을 훌륭하게 묘사한 사람은 결국 사조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사조를 만날 수 없는 가슴 아픔을 시에 그렸다.

이백이 사조를 그리워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사조와 마음이 통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백은 <금릉성 서루의 달빛 아래에서 읊다>에서 “달빛 아래 시 읊조리며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으니, 예부터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이 드물어서라네. ‘맑은 강물 흰 명주처럼 깨끗하네’를 알겠기에, 오래도록 사조를 생각하게 하네(月下沉吟久不歸, 古來相接眼中稀. 解道澄江淨如練, 令人長憶謝玄暉)”라고 했다. 이백은 사조가 금릉의 장강을 바라보며 느꼈던 ‘맑은 강물 흰 명주처럼 깨끗하네’의 청신한 意境을 자신이 이해한다고 보았다. 이는 이백이 동일한 미적 대상에게서 사조와 같은 심미 경계를 체험한 것으로, 심미에서의 공감함을 통해 이백은 사조와 마음이 서로 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백의 사조에 대한 그리움은 자신이 사조와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에서도 비롯된다. <신림포에서 바람에 막히자 벗에게 부치다(新林浦阻風寄友

55) 사조의 시는 <暫使下都夜發新林至京邑贈西府同僚>의 “옥승성이 건강궁에 낮게 있네(玉繩低建章)”와 “가을 새벽에 은하수가 반짝이네(秋河曙耿耿)” 및 <晚登三山還望京邑>의 “맑은 강물 흰 명주처럼 깨끗하네(澄江精如練)”이다. 육현호는 이백의 <秋夜板橋浦汎月獨酌懷謝朓>는 사조의 세 편 중의 시 <宣城出新林浦向板橋>, <暫使下都夜發新林至京邑贈西府同僚>, <晚登三山還望京邑>의 詩意를 櫛括(원래 있는 문장이나 시문을 재단하거나 수정하는 것)했다고 했다. 郁賢浩, 앞의 책, 1236쪽.

56) 이백은 사조의 청신한 문학적 풍격을 높이 평가하여 <宣州謝朓樓別校書叔>에서 “봉래의 문장과 건안의 풍골이 있었고, 중간 시기의 사조는 또한 청신하고 뛰어난네(蓬萊文章建安骨, 中間小謝又清發)”라고 했다.

人)를 보자.

(전략)

昨日北湖梅,	어제는 현무호의 매화가
開花已滿枝.	꽃을 피워 이미 가지에 가득했었지.
今朝白門柳,	오늘 아침은 백문의 버들이
夾道垂青絲.	양 길가에 푸른 가지 드리웠네.
歲物忽如此,	세월은 빠르기가 이리한데
我來定幾時?	나는 언제 여기에 올 수 있을까?
紛紛江上雪,	강 위에는 펄펄 눈이 날리니
草草客中悲.	고달픈 나그네 신세 슬프기만 하네.
明發新林浦,	내일 아침 신림포를 떠나며,
空吟謝朓詩.	팬스레 사조의 시를 읊겠지.

이 시는 이백이 심한 바람으로 인해 신림포에 머물게 되자 강녕 현령 楊利物에게 보낸 것이다. 시의 마지막 구에서 이백이 읊조리겠다고 말한 사조의 시는 〈선성을 가려고 신림포를 나와 판교포로 향하다(之宣城出新林浦向板橋)〉를 말한다. 당시 사조는 무고하게 좌천되어 선성 태수로 가야 했기에 금릉을 떠나는 자신의 울적한 심정을 “나그네는 시름과 피로로 불안하지만, 외로이 떠도는 것은 옛날에도 이미 여러 번 있었네”라고 했다.⁵⁷⁾ 이백은 사조의 시에 그려진 나그네의 고단함을 통해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도는 이백 자신의 고달픈 신세를 반영했다. 이는 이백이 타향살이에서

57) 〈之宣城出新林浦向板橋〉: “뱃길은 서남으로 길기만 한데, 바다로 드는 강물은 동북으로 내달리네. 하늘 끝에서 돌아가는 배를 알겠고, 구름 속에서 강가의 나무를 식별하겠네. 나그네는 시름과 피로로 불안하지만, 외로이 떠도는 것은 옛날에도 이미 여러 번 있었네. 녹봉을 얻으려는 마음도 있고, 창주에 은거하려는 뜻도 있다네. 시끄럽고 때 묻은 이곳에서 멀어지니, 이러한 기회에 마음이 기쁘네. 비록 깊은 표범의 자질은 없지만, 마침내 중남산의 안개 속에 숨게 되었네(江路西南永, 歸流東北驚。天際識歸舟, 雲中辨江樹。旅思倦搖搖, 孤遊昔已屢。既歡懷祿情, 復協滄州趣。囂塵自茲隔, 賞心於此遇。雖無玄豹姿, 終隱南山霧。)”

느끼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사조의 처지와 동일시한 것으로, 사조를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은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시에 나타난 정회를 ‘이별 관련 정회’, ‘회고 관련 정회’, ‘遊樂 관련 정회’, ‘그리움 관련 정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별 관련 정회’는 이백이 금릉에서 느낀 이별의 정회가 중심이 된다. 이백은 이별의 정거장인 離亭에서 이별의 슬픔을, 떠나는 친구를 보내며 석별의 정을, 자신이 떠나며 이별의 아쉬움을 노래했다. 이백의 이별 시에는 슬픔의 정조가 대부분이며, 특히 이백의 불우한 처지가 기탁된 시의 경우 이별의 슬픈 정이 더욱 깊이 그려졌다.

‘회고 관련 정회’는 이백이 퇴락한 古都를 회고하며 느낀 정회가 중심이 된다. 이백은 육조의 도읍지 금릉을 회고하며 대부분 悲哀를 느꼈지만, 그 가운데 조정의 정치를 비판하며 우국의 정을 노래했고, 암담한 자신의 처지를 及時行樂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며,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정조로 금릉을 노래했다. ‘회고 관련 정회’에 그려진 이백의 정회는 당시 정치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遊樂 관련 정회’는 유희나 환락과 관련된 이백의 정회가 중심이 된다. 이백이 금릉에서 자유롭게 유락 생활을 한 것은 당나라의 개방적인 성문 화와 연관되기도 하고, 동산에서 기녀를 데리고 살았던 사안의 삶을 부러워한 것과는 관련 있다. 한편, 이백은 遊樂하는 가운데 방탕과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고아하고 탈속적인 풍류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그리움 관련 정회’는 이백의 자녀와 옛사람 謝朓를 그리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이백의 자녀에 대한 그리움에는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로서의 미안함이 있다. 이백의 사조에 대한 그리움은 사조의 문학적 재능의 흠모, 심미 체험에서의 공감, 동일한 처지에서 느끼는 동질감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시는 한림공봉을 그만둔 후 방황하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 상당하다. 또한 이별과 회고의 시가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이별의 슬픔과 懷古傷今을 노래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백이 금릉에서 느꼈던 情懷는 유희나 환락보다도 침중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감도는 哀傷感이나 無常感, 悲嘆感이 더욱 많다.

<참고문헌>

- 이백 지음,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시집》1—7권, 서울: 학고방, 2015.
- 莫項, 〈情系金陵的李白〉, 《中学生百科》, 2005.
- 呂星月, 袁曦臨, 〈李白金陵詩歌的空間意象挖掘策略研究〉, 《數字人文》第12期, 2021.
- 王國巍, 〈“鳳凰”自比“黃鶴”好—論李白〈登金陵鳳凰台〉的超越性〉, 《西華大學學報》第3期, 2005.
- 王志清, 〈金陵懷古第一詩—李白〈金陵三首〉薦賞〉, 《古典文學知識》第6期, 2009.
- 王志清, 〈李白與“金陵懷古”的集體無意識〉,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第1期, 2011.
- 王志清, 〈吳地對李白的精神重塑與詩歌造就〉, 《東南大學學報》第15卷第6期, 2013.
- 王許林, 〈風流詩仙金陵情—漫談李白六遊金陵的前前後後〉(上)(下), 《文學史話》第2期, 2020.

陸精康 〈唐詩中的金陵王氣〉, 《語文建設》, 2013.

李從軍, 〈李白家室考辨〉, 《杭州大學學報》 第2期, 1981.

張重陽, 王美, 〈論李白金陵詩中的‘水’意象〉, 《中原文學》, 2024.

張天來, 〈李白金陵情結研究〉, 東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鄭琛, 〈現實與追憶—長安, 金陵與唐詩人的都市文化心態〉,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趙丹琦, 〈論李白金陵詩的帝都文化意蘊〉, 《南京審計學院國際文化交流學院》, 2009.

周克勤, 〈李白金陵情結解析〉, 《金陵科技學院學報》 第30卷 第1期, 2016.

周勛初, 〈李白兩次就婚相府所鑄成的家庭悲劇〉, 《文學遺產》 第6期, 1994.

詹福瑞, 〈魏晉劉宋詩文建功立業與及時行樂的生命取向〉, 《清華大學學報》, 2020.

慧泉, 〈李白婚姻帶來的家庭悲劇〉, 《文史天地》, 2009.

武舟, 《中國妓女生活史》, 長沙: 湖南文藝出版社, 1990.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局, 1990.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國, 2011.

詹福瑞·劉崇德·葛景春,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詹鏞,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1.

〈부록〉 이백이 금릉에서 지은 작품

방문시기	작품명		비고
開元13년 (725)	〈登瓦官閣〉	〈送崔十二遊天竺寺〉	총4題6首
	〈金陵望漢江〉	〈白紵辭3首〉	
開元14년 (726)	〈楊叛兒〉	〈長干行2首〉중 제1수	총8首
	〈對酒(葡萄酒, 金叵羅)〉	〈陌上贈美人〉	
	〈贈段七娘〉	〈金陵酒肆留別〉	
	〈口號〉	〈夜下征虜亭〉	

방문시기	작품명		비고
天寶6년 (747)	〈金陵3首〉	〈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	총11題14首
	〈金陵白楊十字巷〉	〈勞勞亭〉	
	〈洗脚亭〉	〈金陵歌送別范宣〉	
	〈月夜金陵懷古〉	〈登金陵鳳皇臺〉	
	〈答族侄僧中孚贈玉泉仙人掌茶〉	〈登梅崗望金陵贈族姪高座寺僧中孚〉	
天寶7년 (748)	〈燕臣昔慟哭〉	〈送楊燕之東魯〉	총10題13首
	〈出妓金陵子呈盧六4首〉	〈金陵江上遇蓬池隱者〉	
	〈金陵鳳凰台置酒〉	〈題金陵王處士水亭〉	
	〈酬崔侍御〉	〈挂席江上待月有懷〉	
	〈自金陵泝流過白碧山玩月達天門寄句容王主簿〉	〈翫月金陵城西孫楚酒樓達曙歌吹日晚，乘醉著紫綺裘烏紗巾與酒客數人棹歌，秦淮往石頭訪崔四侍御〉	
〈東山吟〉	〈示金陵子〉		
天寶8년 (749)	〈奇東魯二稚子〉	〈稚朝飛〉	총8首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金陵送張十一再遊東吳〉	
	〈勞勞亭歌〉	〈金陵城西樓月下吟〉	
	〈秋夜板橋浦汎月獨酌懷謝朓〉	〈送蕭三十一之魯中兼問稚子白禽〉	
天寶9년 (750)	〈留別金陵諸公〉	〈金陵白下亭留別〉	총2首
天寶13년 (754)	〈新林浦阻風寄友人〉	〈春日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	총2首
上元2년 (761)	〈送殷淑3首〉	〈贈昇州王使君忠臣〉	총2題4首
寶應元年 (762)	〈對酒(勸君莫拒盃)〉	〈金陵新亭〉	총5首
	〈金陵聽韓侍御吹笛〉	〈送韓侍御之廣德〉	
	〈聞李太威大舉兵百萬出征東南，懦夫請纓，冀申一割之用，半道病還，留別金陵崔侍御十九韻〉		

<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emotions that LiBai felt in Jinling by dividing them into four aspects.

The emotion on Parting centers around the feelings of parting that LiBai felt in Jinling. In the case of poems that describe LiBai's unfortunate circumstances, the sadness of parting is portrayed even more deeply.

The emotion related to reminiscence is centered around LiBai's reminiscence of the fallen ancient capital. In the emotion related to reminiscence, LiBai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he was in.

The emotion related to joy is centered around LiBai's emotion related to play and pleasure. LiBai did not only pursue debauchery and pleasure while enjoying leisure, but also an elegance that was not secular.

The emotion related to longing focuses on LiBai's children and his old friend XieTiao.

Key Words : 이백(Li Bai), 금릉(Jinling), 이별(parting), 유락(joy), 회고(reminiscence), 그리움(longing)

